

제목: 엄마에게 비밀

박선유

오늘은 아침부터 왠지 모르지만 일어나기 싫은 그런 날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열공을 했다. 열공을 하던 도중 엄마는 엄마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나가신다했다. "너, 엄마 없어도 놀고 그러면 안된다. 선유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조금 짝렸다. 그 이유는 엄마가 나가면 나는 조금씩 놀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가셨다. 엄마의 충대로 공부를 하던중 아버님께서 날 불렀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 공부도 열심히 요즘 하나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나 엄마 몰래 사줄게."

★ 나는 환상의 나라에 온것처럼 활짝 웃으며 아빠 핸드폰으로 사고 싶은 것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손은 워치인 볼처럼 빨리 움직이며 원하는 것을 찾았다. 그러던 도중 사고싶은 것을 결정했다. 나는 원래부터 고급 샵을 보는것이 취이다. 그래서 샵을 시기로 결정했다.

나는 갖고 싶었던 샵 브랜드 '세일러 샵'이라 검색했다. 검색해보

아주 많은 샵들이 많았다. 나는 그중 핑크골드 화이트 색이 눈에 들어왔다.

난 아빠에게 이것을 사달라 했다. 아빠게선 알겠냐 하겠다. ~~나는 이것~~

★ 내가 갖고 싶은 샵을 ~~사~~는다는 생각을 하니 마치 점프를 하여 공중에

올라가 방방 댕는 듯이 ^{말로 다} 표현할수 없을법한 느낌^{들었다}이었다. 하지만 엄마가 아시면 안된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이렇게 말할것이다. "너, 그렇게 샵 많운데 또 새니, 니 아버지는 돈 왜 사주네. 정말로. 공부하라고 했는데 또 쇼핑만 즉장창했나..."라 말할것이고 그러면 내귀가 터질것이다. 그런 상상이 도기에 이것은 엄마에게 비밀이다.